

이동 치과병원이 ‘달려갑니다~’

불교의로지원봉사단 ‘반갑다 연우야’, 이동 진료차량 마련

“다른데 아픈 건 참아도 이 아픈 것은 못 견디겠어요.”

제때 치료하지 못한 치아만큼 통증이 심한 것이 또 있을까. 그러나 의료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웃들의 경우,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치료 진료만큼은 ‘급하지 않다’는 생각에 미뤄두기 십상이다. 진료비가 워낙 비싼 것도 이들이 치료 진료를 미루는 이유다.

이런 이웃들의 치료진료를 돕기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날마다 좋은 날(이사장 김의정)과 동국대 일산병원불자회 회원들이 유기투합한 불교의로지원봉사단 ‘반갑다 연우야’가 소외된 지역의 치료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이동치과진료버스를 마련했다. ‘반갑다 연우야’는 3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봉은사주지 명전에서 이동치과진료 차량의 무사운영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덕 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반갑다 연우야’ 회원 20여명을 비롯해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차량 제작



조계종 총무원장 지원 스님이 ‘반갑다 연우야’ 이동치과진료버스에 탑승,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앞으로 ‘반갑다 연우야’는 이 차량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찾아, 치료진료를 하게 된다.

식, 경과보고, 발전기금전달, 활동계획 발표, 격려사, 축사,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왜 꼭 치과진료차량까지 마련해야 했을까. ‘반갑다 연우야’는 2006년 결성돼 전국 각 지역 복지관과 시골 마을 의료봉사를 시행해왔다. 그러다보니 어려운 이웃, 특히 거동 못하는 무의탁 장애인들

의 경우 치아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반갑다 연우야’는 2007년 3월부터 이동치과진료 사업계획을 수립, 모금 운동 및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2억 1000만원을 모연해 치과진료차량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차량에는 치료료용 덴탈 চে어, 엑스레이(X-ray) 진료기 등의 최신식 치과진료장비와 장애인용

리프트, 천장 냉난방기 등이 설치돼 있다. 앞으로 ‘반갑다 연우야’는 이 차량을 통해 무연고 장애아동, 노인 및 장애인, 농촌 지역 주민 등에게 발치 및 소독, 스케일링, 보철 관련 치료, 상비약품 배부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치료 의료비가 비싸 이가 아파도 치료는 엄두도 못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진차 이런 치료차량을 마련하지 못해 부끄럽다”면서 “이러한 활동이 널리 퍼져 불제자들이 자비 실천을 이뤄가는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주말마다 의료 봉사를 하는 ‘반갑다 연우야’ 선생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차량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반갑다 연우야’는 앞으로 임인용 치과치료단장(서울 인지과 원장)을 주축으로 월 2회 치과진료차량을 통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첫 활동은 3월 29일 서울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글=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사진=박재환 기자



⑰ 노숙인복지시설 영등포 보현의집 승봉규 복지부장

‘노숙인’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몇 가지 있다. 사실 좋은 것은 별로 없다. 서울역 부랑자, 게으름, 나태, 음주, 사비 등 거의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먼저 연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노숙인복지는 곧잘 “그런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하나”는 반대의견에 부딪치곤 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서울 영등포 보현의집(원장 지기) 승봉규(46·사직) 복지부장은 “사회적 편견이 노숙인복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노숙인에 대한 편견 버려야”

“노숙인이 사지가 떨정하다고요? 겁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국민체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몸도 문제지만 사실 마음이 더 문제예요.”

승 부장은 노숙인복지를 이끔며 느껴왔던 사회적 편견에 몹시 마음이 상해있었던 모양이었다. 다른 복지수혜자들 보다 유독 ‘냉대’를 받아왔던 노숙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서글픈 만도 하다.

승 부장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 중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렸다고 말한다. 우선, 노숙인들 중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시설 내에서도 술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과 실랑이가 일어난다. 하지만 이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마음의 집이 크고 공황상태가 길다. 또한 어린시절부터 결혼 가정에서 자라나 쉽게 포기하게 되는 심리구조를



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 보는 등 그 역시 굴곡 많은 삶을 살아왔다. 이런 인생 경험이 노숙인들에게 마음을 터놓는 역할을 했다. 노숙인 상담을 할 때 승 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한다.

“요즘 아저씨들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니다. 월례회 의를 할 때 주체적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 ‘음식을 쓰레기를 즐이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이 사람들이 주인공의식을 갖기 시작했구나’ 싶어 얼마나 환희심이 느껴졌는지 몰라요.”

어느덧 복지시설 종사 6년 차. 이제 그는 복지를 조금 알만하고 이 6년이 자신의 모든 인생보다 훨씬 값진 길이 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서 승 부장은 하나의 꿈을 키우고 있다.

“아저씨들을 면담하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상처를 받고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 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시설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장애우 위해 써주세요”

60대 할머니 유산나눔 실천...승가원에 땅 기증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중범)에서 훈훈한 소식이 날아왔다. 한 기부자가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땅을 승가원에 기부한 것이다.

미담의 주인공은 현재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60대 중반의 모 할머니로 지난 2월 처음 승가원에 전화로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승가원은 3월 1일 모 할머니를 방문, 땅의 등기와 증여 문서 일체를 기증받았다.

기부자 모 할머니는 땅을 기증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도록 승가원 측에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사실 이번 땅 기증은 할머니의 주변인은 물론 자식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다.

할머니가 승가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6년으로 할머니의 둘째 딸이 승가원에 꾸준히 기부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다. 이후에는 함께 식사할만 모은

운동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번에 할머니가 기증한 땅은 경남 함안 일대 2필지로 약 764㎡의 땅이다. 할머니는 “크지도 않은 땅이지만 죽기 전에 꼭 장애인들을 위해 쓰고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는 약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세 자녀를 어렵게 키워냈다. 현재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 전, 자신의 재산을 ‘유산나눔’ 형식으로 기부한 것이다. 승가원은 “가끔 큰돈을 기부하시는 일은 가끔 있지만 ‘유산나눔’으로 땅을 기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할머니의 뜻을 잘 받들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겨가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지역 복지 꽃피우는 예술展

고창복지관 기금 마련 전시회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이) ‘제1회 복지후원금 마련 작품전시 및 모금전’을 개최했다. 3월 17~25일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복지관 운영위원장인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스님, 문수사 주지 선법스님, 이강수 고창군수, 장세영 고창군의장을 비롯한 기관장 및 지역 어르신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법만 스님은 환영사에서 “복지는 소외계층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의 모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원용무애한 삶이 참다운 복지며 문화가 될 것”이라며 선운사와 고

창사회복지관은 초심을 잃지 않고 걸림 없는 복지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고창복지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원담·성수·광공·석정·법주 스님 등의 선화화를 비롯해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정비파·여태명·손숙희 작가의 그림과 이해인 수녀의 시화, 최태근·임성호 작가의 도예 작품 등 120여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관장 무궁스님은 “앞으로 고창 복지관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모인 후원금은 주간보호센터에도 나올 수 없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기초수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밀반찬 제공, 목욕, 집안청소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복지사업

“효타 비결서”

(상·하권)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역학을 전혀 모르거나 한자를 몰라도 1년이면 최고의 프로그라 될 수 있는 효타비결전서가 완전 한글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전수생 모집”

- 대상 : 초보·학력·나이 제한없음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6시(3시간)
- 기간 : 8개월(개강일: 4월 6일 일요일)

※ 좋은이름 지어드립니다.

“신수비결”

토정비결의 궤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 각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2008년의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등
- 한글전용으로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운세를 쉽게 볼 수 있고, 적중률이 높아서 잘 틀리지 않습니다.

▷ 정가 : 20,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어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하여
- 개명, 작명, 범명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작명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하십시오.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정가 :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051)524-9406

대한민국 운명록 運命錄

과학적으로 證明된 精確한 論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일상생활을 위한 獨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전수생 모집

- 스님이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분
- 해광스님 직강
- 문의 : 010-3730-5247

서적구입 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전국대형서점, 불교서적

일 반 상담

- 해광스님의 운명 상담을 원하는 분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 예약문의 : 032)665-8472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인터넷 다음에 <금강선원 해광스님>